

뜨거웠던 그 시절 '1987' 열풍

박종철·이한열 열사 다룬 영화
6월 항쟁 주역 40~50대 등
전국서 관람객 400만명 돌파
전남대 출신 김경찬씨 시나리오

1987년은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꿨던 격동의 한 해였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러 이제는 역사로 남은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한 영화 한 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기사 2·5면>
지난 5일 영화 '1987'이 상영중인 광주 한 영화관에서 50~60대 중·장년층이 관람객의 주를 이뤘다.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고 엔딩크레디트가 올라가도록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영화 중간 중간 को울 울리는 소리, 탄식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영화 '1987'은 1987년 1월 스물두 살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은 끝에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그 시절을 견뎌냈던 보통 사람들의 삶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장준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1987'(장준환 감독이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흥행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관련 인물과 당시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등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했던 6월 항쟁이 주목되며 장기 흥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987'은 개봉 12일 째인 이날 오후 5시까지 관객수 400만명을 넘어선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영화는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으며 6일째 200만 돌파, 개봉 9일째인 지난 4일 300만 관객을 기록했다.

지난 6일까지 광주 지역에서는 12만 2600명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비슷한 인구 규모의 대전은 11만 명이 관람했다. 부산



6일 오후 광주시 북구 한 영화관에서 전남대 6월항쟁 동지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1987' 영화 단체 무료관람 행사가 열렸다. 단체는 6월 항쟁 세대와 촛불혁명 세대가 영화를 통해 상호 공감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5·18 옛묘역)의 이한열 열사 묘소 옆에 놓인 영화 '1987' 포스터.

과 대구는 각각 29만 명과 18만여 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전남지역에서는 10만여 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광주 출신으로 6·10항쟁 당시 전대사대 부고 학생이었던 김경찬(48·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작가가 시나리오를 쓴 영

화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를 사실성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어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 역설하게 죽임을 당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시대적 고통을 겪어지고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의인들의 모습을 연

기한 김윤석, 하정우, 강동원, 유해진, 김태리 등 배우들의 열연도 박수를 받고 있다.

7일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를 방문해 영화를 관람했다. 이날 영화관에는 박종철 씨의 형 중부 씨와 배우 김윤석 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우 문성근 씨 등도 동행했다.

또 이날 현장에는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한 인사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6·10 민주화운동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재홍 씨, 최환 전 검사 등이 그들이다. 한 씨는 영등포교도소 교도관으로 일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이부영 전 의원이 작성한 쪽지를 외부에 전달해 사건의 진상을 알렸고, 최 전 검사는 박종철 씨 시신 회장을 막고 부검을 명령한 인물이다.

그밖에 인터넷에는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있게 해준 그때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등 관객들의 평이 속속 올라오는 등 6월 항쟁을 기억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안철수 "통합이 국민의 뜻" 박지원 "신당 확실히 창당"

'안 대표 2선 후퇴' 중재안 갈등 깊이만 재확인

분당 갈림길에 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당내 중도파 의견들이 제시한 '안 대표 2선 후퇴' 중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면서 갈등의 깊이만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개혁신당 창당을 확실히 밀고나가겠다고 밝혔고, 안 대표는 '통합이 국민의 뜻'임을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안 대표와 박 전 대표는 7일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여수 마라톤 대회'에 나란히 참석했지만, 서로 별다른 대화 없이 취재진과 개별적 인터뷰를 통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선(先) 안철수 대표 사퇴, 후(後) 전대표 통합 여부 결정' 중재안에 대해 "안 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은 뒤 "또 다시 대표 당원들에게 물어보자고 하면 이분들은 이미 75% 통과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중재안은 통합을 반대하면서 해 영화를 관람했다. 이날 영화관에는 박종철 씨의 형 중부 씨와 배우 김윤석 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우 문성근 씨 등도 동행했다.

반면, 안 대표는 "중립파도 어떻게 하면 원만한 통합을 이룰지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찾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중립파 의견도 통합을 해어한다는데 기뻐한 거 아니냐"고 통합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립파가 제시한 '2선후퇴' 중재안에 대해서는 "본질

은 통합"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75% 당원이 통합에 찬성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안 대표는 반대파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실무논의를 예고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출범위원회' 인적 구성을 논의하고 양 당 지도부로 이뤄진 '통합추진협의체' 2차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등 '통합 열차' 추진에 가속을 붙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반대파의 반발이 커 곳곳에 난제가 수도룩하다. 우선 전대 출범위의 정족수가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대에서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동안 전당대회 대선 전자투표 방식으로 통합 전대를 추진하려던 안 대표 측은 전대 정족수 확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통합 반대파 역시 '개혁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20명을 확보할 경우 독자 생존이 가능한 것은 물론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행사해 온 '캐스팅보트'로서의 영향력도 일정 부분 가질 수 있어 신당 추진의 동력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5명씩 확정

북한이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이틀 앞둔 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구성이 완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북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

에는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규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통일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조평통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급 3명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과 대체로 규모를 맞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균형을 맞춰 대표단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밤부터 눈 ... 이번 주 강추위 온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8일 비가 그친 뒤 밤부터 눈이 내리는 등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은 따뜻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최저기온인 영하 2.6도, 최고기온은 5.6도 보다

높은 기온의 분포를 보이겠지만 9일부터는 다시 찬 대륙성 고기압이 한반도에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10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기상청은 8일 광주·전남은 남해상을 지

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친 뒤 밤부터는 일부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새벽까지 광주·전남 예상 강수량은 9mm 내외이며, 예상 적설량은 구례, 곡성 등 전남동부내륙 지역에 1cm 내외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추천여행 ①
캄보디아/앙코르왓

추천여행 ②
베트남/하노이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점 062)228-1199

무안공항출발 해외여행!

나는 더 편하게, 더 다양하게 떠난다!

하나Pack 캐주얼 AVPF10_VJ1

하롱베이 비경관광 포함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17년 12월 30일~18년 1월 31일

➔ 비엠펙항공(VJ항공)

🍷 치맥야식제공, 무제한 샐러서비스, 특식3회(오삼 불고기, 라비엠펙레스토랑, 노니보쌈정식)

하나Pack 클래식 ARPF01_ZA1

VIP 급행비자 포함
앙코르왓 4일·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17년 12월 30일~18년 1월 27일(매주 수, 토)

➔ 스카이앙코르항공

🍷 앙코르를 특유이 투어, 특식 3회(쌈밥정식, 디너뷔페, 수제)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착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이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비) 여행비는 여행기간 동안 여행객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립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환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여행 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을 포함할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할 것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4 여행 유의 / 여행 자재 / 여행 권고 /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